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한판 축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7~18일 2020 굿음악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굿음악축제에서 선보인 고택농악 공연 모습.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팔도의 놀이굿, 전국 곳곳에서 전해져 온 풍물굿 등 다양한 굿음악과 관객들이 직접 국악인이 돼 풍물굿, 강강술래, 남도민요, 판소리를 배워보는 체험 등을 선보여온 굿음악축제가 올해로 17회를 맞았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17~18일 2020 굿음악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굿음악축제는 풍어제를 주제로 한 공연과 학술회의로 진행된다. 매년 굿음악축제 개최시 속박 체험객을 모집해 굿음악 체험과 문화탐방 등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하며 국립남도국악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초청공연으로 17일 오후 7시에는 남해안별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4호) 공연이 펼쳐진다. 무대는 맞이굿, 외장거리, 조너리, 수부시나위, 용선놀이 등으로 구성됐다. 남해안별신굿은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로 세습무가(巫家)들이 주도하는 마을굿이다. 어린이들의 풍어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로, 보통 3년에 한번씩 굿을 벌인다.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예능보

국립남도국악원, 17~18일 '2020굿음악축제' 유튜브 공개 남해안별신굿·서해안배연신굿 등 공연...학술대회도 진행

유자 정영만을 비롯해 마을주민과 보존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전승하고 있다.

18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는 서해안배연신굿(국가무형문화재 제82-2호)은 신정울림, 당산맞이, 소당제석굿, 영산대강, 영산할아밭, 영산할맘굿, 송겨주는굿, 대강놀이 순서로 열린다. 서해안배연신굿은 배 주인이 배의 안전과 풍어, 집안의 번창을 빌며 벌이던 무당굿으로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 위에서 지냈다. 황해도 해주와 웅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해마다 행해졌으며 1985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현재는 인천 소래포구를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학술회의는 1부(17일 오후 2~6시)와 2부(18일 오전 9시~낮 12시)로 나뉘어 열리며 '포용적 예술로서의 풍어제'를 주제로 각 관련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1부 좌장은 임미선이 맡았으며 심상교, 김신호, 허남준이 '동해안 풍어제의 원형미학적 특성연구'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시작한다. 이어 최진아, 김숙희, 오선영이 '풍어의 상징, '봉축'의 포용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정현, 이근욱, 김은희는 '열린형식의 판문화로서의 굿의 확장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2부 좌장은 김우진이며, 이윤식, 송기대, 이윤선이 '어해안 풍어제의 음악미학적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 또 최병길, 손정일, 임수정은 '동해안 별신굿의 장단 구연 양상-푸너리 장단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윤동환, 편성철, 김성식은 '동해안 풍어제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다.

자세한 행사 일정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아시아 도자문화' 제10호

영·중·일문 요약문 함께 수록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아시아 도자문화' 제10호가 나왔다. <사진>

'아시아 도자문화'는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 박물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2018년 3월 창간호가 발행됐다.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되며 전시·발굴·학술행사 등을 심도 있게 다룬 커버스토리와 국내·외 도자 명품 소개, 가마터 발굴 성과, 국내·외 도자 관련 전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울러 국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중·일문 요약문을 함께 수록한다. 창간 당시 500부를 발행했지만 2019년부터 2000부로 부수를 확대했으며, 도자문화 관련 국내·외 전시(제7호)와 학술대회(제9호)를 따로 때 특집호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번 제10호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에서 아시아 미술 전문박물관으로 유명한 프리어 새클러 갤러리의 '피코크룸'을 소개하는 김윤정 고려대 교수의 글을 게재했다. '피코크룸'은 선사시대-20세기 초 아시아 도자기를 전시한 공간이다. 여기에는 1884년 선교사이자 의사로 한국에 온 알렌(1858-1932)에게서 프리어(1854-1919)가 구입한 고려청자 8점이 전시돼 있다.



이 밖에 국립중앙박물관 장성욱 학예연구사의 신안선 발견 고려청자 매병 소개와 강진사당리 고려청자가마터 2차 발굴 성과 등이 수록돼 있다.

한편 이수미 관장은 "1978년 광주 박물관 개관 당시 신안해저문화재를 보관하기 위해 건립했던 역사성 등을 기반으로 아시아 도자문화 센터를 건립, 아시아 도자문화 교류 거점 박물관으로 도약하려 한다"고 밝혔다.

뉴스레터 '아시아 도자문화'는 박물관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편혜영 '홀'



정유정 '종의 기원'



광주 건축물 공공미술작품 '미디어아트' 등장



홀리어스 오피스텔 임용현 작품 설치

광주 지역 건축물 공공미술작품으로 미디어 아트 작품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금까지 광주 지역 건축물에 설치된 대부분의 공공미술 작품은 회화, 공예, 조각이 주를 이뤄왔다.

시공사(주) 퍼스트월드홀리어스가 남구에 신축한 홀리어스 주상복합 오피스텔에는 미디어 아티스트 임용현 작가의 작품이 설치됐다. 우주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고래의 여정을 통해 인류의 개척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Journey' (2018), 인간의 환경에 대한 책임이 커져감을 강조한 'SPREAD' (2018), 돈을 통해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 'Untitled' (2016) 등 3편이다. 건물 외부에 위치한 4개의 기둥을 LED패널로 감싸 입체적으로 표현했으며 작가의 작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영된다. 설치와 관리는 지역 업체 진미디어(JIN MEDIA)가 맡는다.

임 작가는 웰시에대학교 대학원 순수미술 석사 출신으로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레지던시 등에 참여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이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순천시 여성자생단체 역량강화 교육 전남여성가족재단, 13개 단체 참여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여성친화도시 순천시의 정책 파트너이자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갈 풀뿌리 모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순천시 여성자생단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순천시 위탁사업으로 지난 6월 19일 개강했으며 여성자생단체(회장 이경남), 중흥1차부녀회(회장 서성자) 등 총 13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본 교육은 ▲마을공동체 안에서 여성자생단체의 필요성 및 여성의 역할 인식 ▲여성친화마을을 위한 자생단체 운영 목표 및 활동계획 수립 ▲우수자생단체 벤치마킹 교육으로 여성자생단체가 스스로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역량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전남여성가족재단 안경주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순천 여성자생단체 활동기반이 확장돼 더 많은 시민이 여성친화마을을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며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순천시 뿐만 아니라 전남 마을 곳곳이 여성친화마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사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한국작가들 유럽 문학상 후보

조남주 '82년생 김지영' 佛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정유정 '종의 기원'·편혜영 '홀' 독일 리베라투르상

조남주, 정유정, 편혜영 등 한국 작가들의 소설이 연이어 유럽 문학상 후보에 올랐다.

한국문학번역원은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프랑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 1차 후보 10편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에밀 기메 아시아문학상은 프랑스 파리 소재 국립중앙미술관인 기메 박물관이 2017년 제정한 문학상이다. 최근 1년간 프랑스어로 번역·출간된 현대 아시아 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매년 수상작을 선정한다.

한국문학으로는 2018년 황석영의 '해질 무렵'이 수상했으며, 지난해에는 은희경의 '소년을 위로해줘'가 최종 후보에 선정됐다.

프랑스어역 '82년생 김지영'은 르베르 라퐁 출판사 계열 닐 출판사에서 올해 1월 출간됐다. 올해에는 오는 9월 총 5편의 최종 후보

를 선정한 후 11월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유정 '종의 기원'과 편혜영 '홀'은 독일 리베라투르상 후보에 나란히 올랐다. 리베라투르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문학을 독일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여성 작가 중 한 명에게 수여한다.

한국문학은 2003년에 오정희가 '새'로 리베라투르상을, 2004년에 이해경 '길 위의 집'이 리베라투르상 장려상을 받았다. 2018년에는 한강 '소년이 온다'와 김애란 '두근두근 내 인생'이 후보에 올랐다.

올해에는 총 12명의 작가가 후보가 됐으며, 세계 독자들의 온라인 투표로 수상자가 결정된다.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된다.

/연합뉴스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Beltone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기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